



카카오톡에서  
「QR코드」 스캔



노들담복지관  
「친구추가」 하시고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모바일소식을 받아 보세요

# 한해를 돌아보며

관장 신인미 수녀

“하루”라는 단어가 모여 “한 달”  
 “한 달”이라는 단어가 모여 “한 해”를 살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날들은 “모두가 빠르게 지나갔네”라는  
 느낌을 가지며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끼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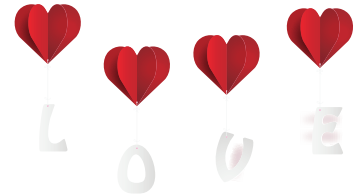
받은 것이 많았던 날들  
 그래서 나눔도 많았던 날들

너와 내가 함께 행복 하자고,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았지만  
 해야만 하는 일 들을 하지는 않았는지...

나를 돌아보고 그동안의 일들을 돌아보며  
 더 나은 새날을 맞으려는  
 12월은 축복의 달인가 봅니다.

“함께”라는 따뜻한 온기와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향기로  
 노틀담복지관과 한 가족 되어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움 마음을 전하며.  
 평화 안고 오시는 아기 예수님의 축복 속에  
 날마다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Contents

### 동행

03 “내 꿈은 대학생”

### 사연이 있는 마당

04 “노틀담대학 17학번의 마지막 이야기”

### 노틀담기획

06 “마음을 나누는 시간”

### 노틀담 소식마당

07 노틀담사진관

### 안내합니다

09 아름다운 관계 맺음 “계양산 숲속이야기! 성료

10 행복후원

11 사랑실천



## "내 꿈은 대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송혜숙 입니다  
 저의 꿈은 대학교 가고 싶어요 입니다  
 저는 중학교는 졸업했습니다  
 대학교가서 직장 다니고 싶어요  
 저는 대학교가 꿈입니다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일하는 것이 부럽습니다  
 저는 이꿈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저는꿈이 이루어지면  
 슬프것 같아요 저는 공부를 열심히해서  
 시험에 합격하고 싶어요  
 저는 글씨를 읽고 쓰기를 잘 못합니다 앞으로 저는  
 매일 매일 글씨고쓰는 연습니다 환 것 입니다  
 저는 쉬운 글로 적혀진 책을 매일 매일 읽을  
 것입니다  
 저는 일기를 매일 매일 쓰겠습니다 응원해 주세요



노틀담복지관에서는 이용자들의 마음속 진솔한 이야기를 뚝뚝하고 당당하게 표현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자기주장대회를 진행 하였습니다.

그 중 송혜숙님의 아름다운 "꿈"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송혜숙님의 아름다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 노틀담대학 17학번의 마지막 이야기

### Q. 노틀담대학에 입학하고 변화된 점이 있나요?

1. 임준혁: “예전에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었어요. 상처도 많이 받았죠. 이곳에서 좋은사람들을 만나 마음속이 회복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밝아진 제가 있어요. 친구들과의 추억도 제 마음 속에 간직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 김남준: “내 의견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점? 하하. 부모님도 가끔 놀라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저의 의견을 들어주시고 존중해주시죠. 그리고 책임감? 성인이 된 우리에게 자유라는 선물이 왔듯이 책임감도 커졌죠. 또 다른 나를 찾은 것 같아요.”
3. 박상준: “예전에는 마음에 안드는 친구는 안 만나려고 했어요. 친구관계에서 힘든일도 많았고요. 여기 들어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다같이 놀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아주 많이 긍정적으로 변했어요.”





4. 김나영: “불빨간 소심한 학생이었어요. 이곳에서 처음으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친구들과 과도 싸울 때가 있지만, 이 과정에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늘 집에만 있던 학생이었어요. 이제는 친구들과 만나서 문화 활동도 즐기며 행복한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선생님 사랑하고 감사해요.”
5. 명은지: “사람들 앞에서 말도 잘 못했어요. 부끄러움이 워낙 많아서.. 근데 자기표현하는 방법도 배우고 NTop 댄스무대에도 서보면서 많이 달라졌죠. 자신감도 생기고 내 의사도 확실하다보니 친구들에게 신뢰도 쌓이고, 과대도 당선 됐어요. 선생님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6. 이예리: “사고성 없던 제가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의견제시를 잘 못했던 제가 자기주장을 하게 되었어요. 예전 사람들과의 상처를 이곳에서 치유한 것 같아요. 선생님 저의 17학번을 잊지말아주세요! 사랑하고 고마워요!
7. 신호원: “저는 이곳에 오기 전, 아주 어두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장애인이라는 인식에 박혀 난 못해, 할 수 있는게 없어 라고 생각했지요. 입학해서도 쉽게 이러한 마음은 지워지지 않았는데, 담임선생님이 늘 해주시던 말. ‘회원아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 우리 같이 해쳐나가자.’의 말들이 저를 바꿔게 만들었어요. 어두운 세상에서 이제는 밝은 빛을 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졸업이 코앞이네요.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1. 조성준: “정미 참 많이 들었는데 졸업만 생각하면 마음이 짝 막힌 것 같아요. 매일 보던 선생님을 못 본다니 슬프네요. 지금까지 많은 것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한 달 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마무리 잘하도록 할게요. 친구들아 더 넓고 밝은 미래를 꿈꾸자!”
2. 최준혁: “슬픈 얘기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웃으면서 얘기할게요! 졸업해도 우정과 선생님의 은혜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덕분에 꿈을 꾸는 제

가 되었고 마지막까지 모두를 도와줄 거랍니다. 선생님 매우 감사합니다. 졸업해도 계속 연락하고 찾아뵙고 싶어요.

3. 김종명: “슬픈 느낌이에요. 강이 바다를 만나듯이 또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듯이, 언젠가 또 만날 수 있겠죠. 이 우정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추억은 평생 잊지 않을거예요. 2년동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4. 신준하: “많이 아쉬워요. 모든 추억들이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졸업해도 친구들 만나고 선생님도 찾아뵙 거예요. 2년 동안 가르쳐주셔서 감사해요. 애들아 이제 졸업 얼마 안남았으니까 아쉬워? 다들 졸업하고 또 만나자. 노름담대학 오니까 너무 좋았어.”
5. 김효수: “선생님을 못 봐서 너무 아쉬워요. 특히 한 친구에게 많이 미안해요. 제가 초반에 너무 뭐라고 했거든요. 너무 심했었나? 라는 생각도 들고 하지만 지금은 너무 좋은 친구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 자리를 빌려 미안하다고 전하고 싶어요. 너는 가장 좋은 친구였다고. 다들 고맙고 사랑해요.”
6. 김영성: “(한숨) 졸업만 생각해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좋은 추억 남겼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언제나 잘 챙겨주고 도움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친구들아 너희들이 있어서 너무 좋았어. 고맙고 사랑해”
7. 정재영: “많은걸 배우고 가는 것 같아요. 선생님 저 예쁘다고 사랑한다고 애정해주셔서 감사해요. 졸업해도 시간이 있을 때 찾아뵙거예요. 친구들아 고마워 사랑해<손모양 하트>잊지 못할 추억 중 하나야”

**끝으로 담임 선생님 한마디?**

“사랑이 넘치는 우리 17학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인생을 여행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저의 최고 여행지였습니다.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잊지 못 할 추억을 선물해드릴게요. 감사하고 많이 사랑해요.



# 마음을 나누는 시간 ♡

차가운 기운이 가득한 11월의 첫 날. 자세유지기구센터를 향한 애정 어린 마음을 가득 안고 발걸음 해주신 21분의 이용자 및 보호자와 함께 이용자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1년차 새내기 보호자부터 14년차 최고참 보호자까지, 센터와 함께한 시간은 서로 다르지만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격려하고 지지받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센터에 처음 올 때만 해도 반신반의 했는데 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평가해주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나 스스로도 책임감을 느낍니다. 누워만 있던 우리 아이가 학교도 다니고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아지면서 아이와 저 모두의 삶이 변하고 있음을 하루하루 느껴요. (구0의 어머님)

● 지금까지 센터를 이용하면서 자세유지기구만 생각했는데 아이를 위해 장난감을 개조한 센터에 한번 놀라고 그것을 갖고 노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또 한번 놀랐네요. (정0정 어머님)

● 작년에 인천으로 이사를 와서 학교를 통해 노틀담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었어요. 아이에게 많은 것을 해주고 싶어도 정보가 없어 막막했는데 다른 어머님들의 이야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된 것 같아요. 감사해요. (이0하 어머님)

자세유지기구센터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족한 부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주신 보호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지금의 모습에 만족하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센터를 찾아주시는 한 분, 한 분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물할 수 있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틀담 가족여러분 함께 지켜봐주세요. ^^



## “2018년 장애학생 현장중심 일자리사업”



- 일시 : 2018년 10월 29일 (월)~12월 14일 (금)
- 장소 : 인천지역 사업체
- 대상 : 인천지역 고3 장애학생, 전공과 학생

인천광역시교육청-한국장애인개발원 협력사업 “2018년 장애학생 현장중심 일자리사업” 오리엔테이션을 11월 2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여명의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7개의 사업체에서 주4회 현장중심 순환식 직업훈련을 통해 현장 감각을 익히고, 주1회의 집합훈련을 통해 직업준비를 위한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들담복지관은 전환기 특수교육 학생들의 진로를 위해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 협력하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천장애인복지협회 직업재활분과

## 연합행사 참석

- 일시 : 2018년 11월 7일 (수)
- 장소 : 아라비안나이트(인천 계양구 소재)
- 대상 : 직업개발팀 이용자 38명

매년 11월이 되면 인천지역 직업재활분과 연합행사가 실시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신나게 춤추며 스트레스를 팍팍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었습니다. 초대가수의 깜짝 방문으로 분위기는 더 고조되었고 노들담복지관 최고의 아이돌 NTop이 축하무대에서 엄청난 환호와 응원을 받았습니다\*^^\* 매년 장애인들을 위해 장소를 마련해주시고, 봉사활동도 해주시는 아라비안나이트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봅니다.



## 계양구청장애 에어로빅스 체조대회 3위 입상!

- 일시 : 2018년 11월 3일 (토)
- 장소 : 계양구청 6층 대강당
- 대상 : 성인 발달장애인 8명

계양구청, 계양구체육회에서 주최하고 계양구체조협회에서 주관한 제12회 에어로빅스체조대회에서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라는 곡으로 건강하고 신명나는 체조를 선보여 당당히 3위에 입상하였습니다.

인천교통공사&노틀담복지관

## 함께하는 재가장애인나들이



- 일시 : 2018년 9월 14일 (금), 2018년 10월 16일 (화)
- 장소 : 대부도 동춘서커스&시화나래조력공원, 일산 아쿠아플라넷&호수공원

- 대상 : 재가장애인 및 가족

인천교통공사 콜택시팀의 지원으로 재가장애인 및 가족이 대부도와 일산으로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어릴적 추억을 되새기는 신기한 동춘서커스와 알록달록 예쁜 물고기를 마음껏 보고 즐길 수 있었고, 바다에 둘러싸인 대부도의 공원과 일산 호수공원을 산책하며 가을의 선선한 바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멋진 사진과 소중한 추억을 만든 즐거운 나들이였습니다^^

## 내 안의 아름다운 발견 Falling 가을음악여행

(2018 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

- 일시 : 2018년 11월 16일 (금)
- 장소 : 노틀담복지관 강당
- 대상 : 인천시 거주 성인 여성장애인

‘나의 인문학으로 ‘내 안의 아름다운 발견’이라는 주제로 가을 음악 기타연주와 스토리텔링이 더해져 나에게 집중하고 사연이 담긴 음악을 앞에 나와 부르며, 서로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 시행

- 일시 : 2018년 9월 6일 (목), 18일 (화), 10월 16일 (화)
- 장소 : 중증장애인요양시설 밝은마음
- 대상 : 시설 이용자 15명

인천시 장애인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 실천으로 다수의 장애인이 생활하는 시설에 직접 찾아가 개별 신체상황과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자세유지기구를 제작 및 지원하였습니다.





## 아름다운 관계 맺음

# "계양산 숲속이야기! 성료!"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아름다운 가을날.. 제20회 “계양산 숲속이야기” 가 이용자 및 가족,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직원,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축제의 자리로 열렸습니다.

올해 지역문화행사는 이용자가 주체가 되어 행사에 참여하고, 지역주민들이 가족과 함께 소박한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나누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준비하였습니다. 그 덕분인지 이 자리에 노틀담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문화공연마당, 체험마당, 장터마당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소설 ‘어린왕자’에는 전문 정원사가 키워낸 5천 송이의 화려한 장미꽃보다 어린왕자가 공들여 길들인 단 한 송이의 장미꽃이 더욱 소중한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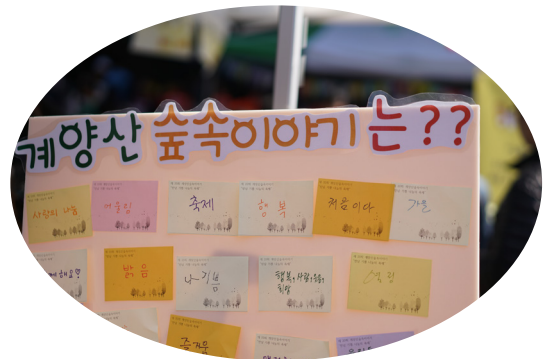
제20회 계양산 숲속이야기는 이용자, 가족, 지역주민, 직원 모두가 공들여 피워낸 어린왕자의 한 송이 장미꽃과 같이 소중한 아름다운 추억을 우리에게 선물하였습니다.

또한 모두의 관심과 진심을 담은 노력을 통해 펼쳐진 축제의 자리였고, 그 안에는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아름다운 관계맺음이 있었습니다. 이용자가 주체가 되어 참여하고, 함

게 하는 후원자, 봉사자가 서로 복돋우며, 많은 지역주민들이 함께 해주셨던 시간들.. 모두가 더불어 사는 행복한 지역 사회 공동체를 꿈꿀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기쁘고, 함께 해주셔서 행복했습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정성과 사랑은 지역의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사용할 것입니다. 함께 해주신 한분 한분의 정성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 행복을 후원합니다 / 2018년 9월 1일 ~ 2018년 11월 30일

### 노틀담복지관 후원자

#### ☞ CMS 후원해주신분

강금실, 강대영, 강동진, 강성호, 강영란, 강은영, 강은형, 강이화, 강재도, 고기영, 고수주, 고은이, 고정호, 고현욱, 고혜진, 곽용선, 권영태, 권유성, 권재준, 권현준, 김경목, 김경미, 김계순, 김계향, 김귀봉, 김기욱, 김만용, 김명길, 김명숙, 김미경, 김민영, 김민지, 김상준, 김선희, 김소희, 김수린, 김수영, 김 숙, 김순식, 김신임, 김연옥, 김연자, 김영미, 김영수, 김영임, 김영희, 김예진, 김용득, 김원석, 김윤수, 김은누리, 김은엽, 김은희, 김장희, 김재유, 김정민, 김경수, 김정욱, 김정훈, 김지애, 김 준, 김지영, 김진주, 김진하, 김총겸, 김태균, 김하나, 김형동, 김혜련, 김호경, 김희선, 남금순, 남정숙, 노국현, 노용은, 노천규, 류경이, 문국현, 문재왕, 민미연, 박경규, 박난주, 박미순, 박민주, 박상선, 박선영, 박순영, 박신후, 박영규, 박영석, 박영순, 박영하, 박옥례, 박은주, 박종복, 박종철, 박주연, 박지숙, 박지환, 박한섭, 박해림, 박현선, 박현주, 박혜진, 박홍석, 배상순, 백상명, 백옥분, 서민재, 서은숙, 서지현, 선승규, 성경임, 소석현, 손연경, 송기만, 송덕영, 송재욱, 송지운, 신미숙, 신수정, 신승훈, 안동찬, 안수형, 안영미, 안윤정, 안정근, 어명희, 엄명범, 엄영희, 엄태철, 예유경, 오관진, 오규례, 오미숙, 오승주, 오영욱, 오창현, 오향숙, 온승훈, 우성원, 원가을, 유동준, 유병욱, 유순자, 유진숙, 유혜진, 윤경희, 윤덕진, 윤선애, 윤영섭, 윤은경, 윤재술, 윤항미, 윤현섭, 이 경, 이경옥, 이경재, 이경현, 이광재, 이광정, 이만재, 이명수, 이명욱, 이명자, 이미란, 이미심, 이민영, 이범우, 이보영, 이상규, 이승찬, 이연숙, 이용갑, 이은기, 이은미, 이은숙, 이은아, 이정옥, 이정주, 이종민, 이 준, 이진선, 이창범, 이창진, 이흥희, 이지행, 이태호, 이혜진, 이희선, 임다현, 임동준, 임병만(로이텍), 임희선, 장광순, 장동현, 장선미, 장선희, 장세현, 장솔이, 장순화, 장슬아, 장유순, 장은주, 장인수, 장재규, 전병환, 전상학, 전영규, 전용권, 전유경, 전진영, 정고은, 정동욱, 정성훈, 정순균, 정영규, 정영미, 정은아, 정은영1, 정은영2, 정인순, 정인오, 정재호, 정준태, 조미숙, 조영욱, 조유림, 조정미, 조진원, 조치형, 주지현, 진병신, 진강현, 차승호, 천선자, 천은영, 천현숙, 최고다, 최길수, 최남연, 최명운, 최명주, 최미연, 최미용, 최승학, 최예은, 최옥선, 최옥희, 최인현, 최재환, 최정인, 최지선, 최창석, 최추분, 최춘욱, 최한락, 최현식, 최현욱, 하광녀, 한가람, 한성희, 한순자, 한창훈, 한춘자, 함석영, 허두행, 허재호, 허해경, 홍기정, 홍상표, 홍성호, 홍용호, 홍은진, 홍진영, 홍택기, 황성영, ㈜고상테크, ㈜철은인터내셔널, ㈜케이티스틸, 가르멜수도회, 딸기어린이집, 명품축산도매센터, 씨에스에스(주), 제이엔씨동물병원

#### ☞ 자동차, 계좌이체, 방문후원해주신분

강경원(EFA태경), 김광일, 김명진, 김미향, 김병호, 김상현, 김연식, 김영주, 김영준, 김중우(에세이마스터), 김종진, 김준호, 김지훈, 김현태, 김형식, 김호숙, 남정인, 류정은, 문경인, 박강렬, 박경욱, 박영순, 박병철, 박성중, 박양란, 박재훈, 박정수, 박종찬, 박지만, 배봉광, 사혜진, 서영준, 서주경, 서지현, 서효주, 설미영, 손민수, 손영은, 손용석, 손정락, 송동현, 신만규, 이상영, 신용영, 신창욱, 심상혁, 안정욱, 양용필, 양정진, 양찬욱, 양현욱, 엘리사벳, 오경호, 윤은경, 윤장유, 윤정희(신준하), 은광원, 이광근(성도물류), 이광수, 성, 이덕이(박상준), 이문영, 이미옥, 이병곤, 이상호, 이승복, 이승우, 이승욱, 이승철, 이정환, 이지윤, 이필영, 인선홍, 이 우, 임미영, 임종석, 임진순, 장선희, 장승형, 장정운, 전상길, 전상환, 전현수, 전현준, 정명섭, 조관환, 주성훈, 최인석, 최진영, 최한락, 탁신숙, 한순영, 한인희, 허승형, 허재강, 홍선진, 홍성민, 황철주, ㈜동양우레탄, ㈜제이케이글로벌, ㈜지앤지티씨, 계양구협의회, 국민연금공단, 국민은행(계산역지점, 용종동지점, 임학동지점, 작전동지점), 기업은행, 김밥만두국가대표, 노틀담대학(17학번부모회, 18학번부모회), 도진기업, 동구한마음복지관, 바질코드, 미추홀장애인복지관,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빨간돼지(김정숙), 사회복지사협회, 새마을금고계산점, 서은엔지니어링, 신한은행(계산동지점, 계양구청지점), 월드비전광주전남복지회, 인천사회복지협의회, 주택관리공단(주), 코벤

#### ☞ 물품 후원해주신분

김충무, 최동규, ㈜대한제분인천공장, ㈜사바스, ㈜와이아이, 계양구청복지정책과, 계양생협점자연드림, 광동, 꿈을주는과일재단, 삼성생명보험(주), 이마트계양점, 인천하이병원, 전진교역, 제인스토어, 주택관리공단(주), 하나기업주식회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피자헛부평2호점

### 아동주간보호시설 후원자

강문수, 강봉규, 김명자, 김민영, 김정현, 김현태, 김형택, 김혜원, 서정규, 염영재, 임민숙, 임지영, 장원영, 전권식, 전예숙, 정혜령, 최영숙, 황철희, 인천준바피트니스

### 성인주간보호센터 후원자

김경숙, 김경진, 김연숙, 남윤진, 문지성, 박성현, 박소영, 박소현, 박영근, 서성희, 신승훈, 신현목, 안종일, 용민우, 원인숙, 유형재, 이병도, 이영인, 이푸른, 이하늘, 이향재, 이현주, 임재남, 장형숙, 차희수, 최고다, 최성우, 최종원, 홍용숙, (주)청이엔지

### 노틀담베이커리 후원자

강영란, 금시열, 김기수, 김길용, 김서우, 김예진, 김은누리, 김정민, 김필호, 맹훈호, 박미애, 박혜진, 백옥분, 송정현, 안병운, 안유선, 양태빈, 유경자, 유인철, 윤기동, 윤은경, 이돈하, 이병천, 이승찬, 이태규, 임희선, 정다미, 정동성, 정영규, 주정연, 한수연, 허재영, 황정현



# 사랑을 실천합니다 / 2018년 9월 1일 ~ 2018년 11월 30일

## 노틀담복지관 봉사자

### Q 아동발달팀

김경숙, 김민재, 이주연, 장동수, 정인아

### Q 직업개발팀

김예슬, 이광정, 이연희, 이예은, 경인여대, 경인여대 유아교육학과 및  
아동미술학과(강혜빈, 김세린, 김예민, 김유진, 김윤경, 김은지, 노아영, 오다연,  
전지은, 조혜빈, 천효경, 표수민)

### Q 능력개발팀

김백희, 김옥자, 김희정, 양한형, 주영석

### Q 지역사회팀

강다영, 강라영, 강민서, 강성목, 강재우, 경희자, 고영애, 고은영, 고진영, 곽은지, 권성자,  
권현정, 김건양, 김경자, 김경제, 김관희, 김금환, 김대연, 김동민, 김동초, 김래원, 김미경,  
김미주, 김민지, 김보현, 김상래, 김상현, 김서영, 김선엽, 김성중, 김성현, 김성희, 김순연,  
김옥진, 김은미, 김은정, 김은주, 김준영, 김중광, 김진기, 김진숙, 김진옥, 김창경, 김창진,  
김태숙, 김태진, 김현숙, 김현옥, 김형기, 나인우, 문병수, 민예지, 박경은, 박동연, 박동재,  
박상우, 박선자, 박성재, 박성중, 박수아, 박순남, 박순영, 박순숙, 박영혜, 박영훈, 박용태,  
박은숙, 박일용, 박재윤, 박지훈, 박향숙, 박현선, 박형근, 박희정, 방경선, 배원정, 백금수,  
변광현, 변근혜, 복인영, 복진숙, 서민석, 서영숙, 서용세, 서정란, 성낙현, 손정락, 송우림,  
신미란, 신종호, 신창욱, 심상혁, 안승희, 안인숙, 안호석, 양규석, 양승혁, 양은선, 양은이,  
양재훈, 양지은, 오경애, 오영희, 오홍렬, 유희표, 유중석, 유광순, 윤덕호, 윤 민, 윤분호,  
윤수영, 윤지풍, 윤창국, 윤태수, 이나경, 이나경, 이나은, 이동표, 이률화, 이명숙, 이상록,  
이서영, 이서이, 이수진, 이승숙, 이시우, 이시현, 이애린, 이연화, 이예원, 이옥란, 이종수,  
이주은, 이준경, 이지연, 이지현, 이창호, 이태한, 이현정, 이현희, 이혜옥, 이호성, 이홍근,  
이희영, 임명수, 임미정, 임용길, 임은택, 임춘순, 임혁규, 임혜숙, 장선희, 장성진, 장윤희,  
전상길, 전영선, 정금연, 정동주, 정민서, 정원선, 정은하, 정정애, 정해선, 정현빈, 조경진,  
조동준, 조영림, 조영식, 조유림, 조은재, 조지형, 주익환, 지광남, 지순진, 진철희, 채현숙,  
천혜령, 최미경, 최범석, 최석문, 최승국, 최옥희, 최은남, 최윤정, 최은석, 최은선, 최은진,  
최정익, 최한락, 최현규, 탁신숙, 하미희, 하은진, 하정배, 하희숙, 한상운, 한영순, 허용갑,  
현미영, 홍상표, 황옥진

### Q 나눔연계팀

강신정, 강윤순, 강현표, 고미라, 권두현, 권영란, 권영정, 권은택, 권중순, 권향란, 김윤웅,  
김건양, 김건호, 김경분, 김경연, 김경임, 김경희, 김계업, 김귀덕, 김기정, 김남정, 김덕계,  
김명화, 김명희, 조은계, 김민희, 김봉순, 김사랑, 김상현, 김선영, 김선희, 김성자, 김수진,  
김순남, 김순영, 김순옥, 김양자, 김영길, 김영란, 김영석, 김영준, 김영화, 김옥임, 김용수,

김용희, 김윤선, 김윤정, 김은경, 김은미, 김인원, 김재봉, 김재연, 김정선, 김정자, 김주선,  
김주옥, 김지원, 김진기, 김창현, 김춘자, 김태훈, 김한성, 김향숙, 김혜연, 김현재, 김현정,  
김현주, 김홍자, 김희순, 나용규, 남금순, 남인숙, 노나인, 노년미, 노아영, 노옥자, 노이분,  
노형래, 도혜영, 동덕자, 류수자, 모서현, 문은숙, 문추업, 민권순, 박경상, 박경임, 박경희,  
박동후, 박명수, 박병일, 박서진, 박선애, 박성빈, 박성중, 박순옥, 박순권, 박영훈, 박영희,  
박예진, 박옥례, 박옥주, 박용희, 박원금, 박은숙, 박장혁, 박재윤, 박재현, 박정자, 박준현,  
박지훈, 박춘자, 박출원, 박현선, 박희정, 배상순, 백승현, 백아영, 백영숙, 백은임, 백은하,  
백형란, 변정숙, 서선옥, 서영월, 서정란, 성미경, 송금학, 송옥임, 신성수, 신수경, 신창욱,  
신하나, 심미정, 심성숙, 안명은, 안외순, 안준영, 양명자, 양선희, 양승덕, 양옥자, 어우희,  
여서훈, 염숙경, 오금례, 오다연, 오명숙, 오인숙, 용순이, 유경자, 유신자, 유애열, 유명미,  
유영인, 유정순, 윤선덕, 윤승현, 윤완실, 윤은지, 윤정권, 윤정미, 윤준례, 윤춘오, 윤철선,  
윤현주, 윤 환, 이경미, 이경숙, 이광국, 이길림, 이남주, 이대성, 이덕이, 이도심, 이동순,  
이명선, 이미경, 이마숙, 이미향, 이미현, 이상미, 이소연, 이수열, 이수진, 이수희, 이순화,  
이승자, 이영순, 이영옥, 이영자, 이은숙, 이임주, 이장운, 이재욱, 이정숙, 이정희, 이종녀,  
이지은, 이진미, 이태재, 이혜숙, 이혜옥, 이혜진, 이호룡, 이호숙, 이효진, 임경희, 임미영,  
임순기, 임연옥, 임영수, 임영옥, 임은숙, 임종명, 임진규, 임하경, 임해선, 장대중, 장동순,  
장봉숙, 장봉애, 장윤미, 장윤순, 장은희, 장정옥, 장전숙, 장정문, 전대성, 전상진, 전은경,  
전지은, 정갑순, 정다연, 정명희, 정미영, 정민성, 정보름, 정선희, 정성현, 정수연, 정숙이,  
정영자, 정영훈, 정은선, 정인숙, 정지영, 정지예, 정지은, 정호순, 조경희, 조명국, 박춘자,  
조명숙, 조명순, 조성희, 조연순, 조영권, 조영민, 조영숙, 조유옥, 조은재, 조은정, 조혜민,  
조효순, 주세환, 지영란, 지윤미, 지춘자, 지은어, 진영숙, 차민수, 최동윤, 최미식, 최미영,  
최민규, 최선희, 최순연, 최순옥, 최영순, 최영애, 최종국, 최주경, 최충희, 추인숙,  
표미옥, 하희숙, 한만철, 한보람, 한순영, 한영순, 한정례, 한정예, 허강민, 허선하, 현미영,  
현은숙, 현지애, 홍기정, 홍대영, 홍춘화, 황동현, 황영미, 황영자

## 아동주간보호시설 봉사자

강호정, 고성숙, 구금란, 구남이, 권나경, 권문희, 김경민, 김남희, 김미숙, 김민정, 김봉숙,  
김성희, 김 송, 김순희, 김연옥, 김영미, 김은영, 김은주, 김은주, 김춘이, 김현영, 박봉화,  
박성희, 박정숙, 백은학, 변명자, 서정란, 송기순, 신선자, 양승례, 오인숙, 유경례, 유년희,  
이강분, 이계숙, 이남선, 이서현, 이상순, 이상현, 이선민, 이숙재, 이영자, 이옥년, 이옥연,  
이은정, 이정란, 이형숙, 이혜정, 장 숙, 장영진, 전민정, 정은숙, 정재경, 정정미, 주남이,  
최혜영, 한희순

## 성인주간보호센터 봉사자

김경진, 김대현, 손성훈, 이종성

## 노틀담베이커리 봉사자

강명규, 김기열, 김복순, 김혜숙, 박명우,  
서동호, 서정민, 윤연자, 이명숙, 이미영,  
임일삼, 장동수, 주현숙

※명단에서 누락되었거나 주소·연락처 등이 변경되신 분은 노틀담복지관 나눔연계팀(☎032-540-8936)으로 전화주세요.

### 노틀담과 함께 나눔으로 기적을 만들어요

- 후원계좌 | 기업은행 111-111-3711, 예금주 | 노틀담복지관
- 후원계좌 | 기업은행 388-037316-01-614, 예금주 | 노틀담아동주간보호시설
- 후원계좌 | 기업은행 388-037316-01-977, 예금주 | 노틀담성인주간보호센터
- 후원계좌 | 기업은행 111-111-8986, 예금주 | 노틀담베이커리

